

늘푸른물결

통권 291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12 2023



일회용품 규제 완화 규탄 기자회견

충청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폐 규탄 대전·세종·충남·충북 공동행동'이 11월 21일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진시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대화 마무리



“온실가스 배출하는 LNG 말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해야”



충청 시민단체 환경부에 “일회용품 규제 원안대로 시행하라”

- ▶ 발행일 2023. 12. 10.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 ▶ 편집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유형민, 박희선, 조순형
임수진, 김정진, 박은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j.ekfem.or.kr

3 이달의 시

| 그 겨울의 시 / 박노해

4 지역환경이슈1

| 당진시, 2021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합계 전국 11위

6 지역환경이슈2

| 당진시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대화 마무리

7 지역환경이슈3

| 정파적이고 특정 발전원에 편중된 강의 등 문제 노출

8 지역환경이슈4

| 포항·광양·당진 환경련 “포항제철소 민관협의체 구성하라”

9 충남환경이슈1

| “온실가스 배출하는 LNG 말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해야”

10 전국환경이슈1

| 충청 시민단체 환경부에 “일회용품 규제 원안대로 시행하라”

11 전국환경이슈2

| “산업폐기물로 기업은 돈 벌고 피해는 주민이...더는 안 돼”

12 만화로 보는 ‘멈춰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19 11월 살림살이

20 11월 활동소식

22 12월 주요사업 계획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24 광고



그 겨울의 시

박노해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
윗목 물그릇에 살얼음이 어는데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어린 나를 품어 안고
몇 번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네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랑가
소금창고 옆 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을랑가
뒷산에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랑가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낭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찬바람아 잠들어라
해야 해야 어서 떠라

한겨울 얇은 이불에도 추운 줄 모르고
웬지 슬픈 노래 속에 눈물을 훔치다가
눈산의 새끼노루처럼 잠이 들곤 했었네

작가소개

작가 박노해

1957년 전라남도 함평 출생

1983년 《시와경제》 등단

시집 『노동의 새벽』, 『겨울이 꽃핀다』, 『참된 시작』,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사진 에세이 『라 광야 - 빛으로 쓴 시』, 『나 거기에 그들처럼』, 『여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만 같아요』, 『다른 길』, 산문집 『오늘은 다르게』, 『아체는 너무 오래 울고 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 1988년 제1회 노동문학상 1992년 시인클럽 포에트리 인터내셔널 로테르담재단 인권상.

당진시, 2021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합계 전국 11위

업체별 순위 현대제철 전국 11위, 알테크노메탈 전국 20위

2021년 당진시 업체별 유독물질 배출량·이동량 (상위 20개 업체)

(단위 : kg/년)

	업체명	배출량	자가매립량	이동량	합계
1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	23,058	508,881	4,002,488	4,534,427
2	희성피엠텍(주)	123	0	759,937	760,060
3	(주)태진스틸산업	1,029	0	557,017	558,046
4	(주)삼우산세공장	155	0	517,909	518,064
5	(주)휴스틸	212	0	379,939	380,151
6	서울경금속 당진지점	0	0	195,000	195,000
7	케이지동부제철(주)	905	0	167,768	168,673
8	지에스이피에스(주)	44,948	0	0	44,948
9	(주)비츠로셀	861	0	41,047	41,908
10	에스엠인더스트리(주) 케이티세라믹사업부 당진지점	7,354	0	31,353	38,707
11	한국동서발전(주)당진발전본부	34,496	0	0	34,496
12	(주)인성 당진공장	9,819	0	23,246	33,065
13	황금에스티	1	0	25,769	25,770
14	유신정밀공업(주)	0	0	20,000	20,000
15	현대그린파워	13,035	0	737	13,772
16	선진정공(주)	10,711	0	0	10,711
17	(주)한내포티	233	0	8,475	8,708
18	동우에이치에스티주식회사	4,209	0	0	4,209
19	대주중공업(주) 당진공장	2,333	0	0	2,333
20	한일화학공업(주)	331	0	1,914	2,245

전국 사업장별 2021년 화학물질 배출량 및 자가매립량, 이동량을 집계한 결과 당진시는 2만2,985톤으로 시군구별 순위에서 1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2021년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정보를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정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진시는 전국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125만7,508톤의 1.83%인 2만2,985톤을 기록했다.

당진시의 2021년 화학물질 배출량은 1,009톤, 자가매립량은 780톤, 이동량은 2만1,197톤으로 나타났다. 당진시는 배출량으로는 전국 21위를 기록했으나 이동량이 많아 합계에서 전국 11위를 차지했다.

전국의 업체별 배출·이동량 합계 순위에서는 현대제철이 1만2,799톤으로 11위, 부곡공단에 소재한 알루미늄 합금 생산기업 (주)알테크노메탈이 5,162톤으로 20위로 나타났다.

2021년 당진시 업체별 발암물질 배출량·이동량 (상위 10개 업체)

(단위 : kg/년)

	업체명	배출량	자가매립량	이동량	합계
1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	9,805	154	166,105	176,064
2	(주)인성 당진공장	6,374	0	28,412	34,786
3	(주)삼우산세공장	2	0	9,567	9,569
4	황금에스티	1	0	4,059	4,060
5	(주)알테크노메탈	3	0	857	860
6	에스엠인더스트리 (주) 케이티세라믹사업부 당진지점	97	0	414	511
7	(주)승진기계	373	0	3	376
8	(주)인지디스플레이 당진1공장	0	0	343	343
9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	196	0	0	196
10	한일화학공업(주)	139	0	3	142

당진시 업체별 배출·이동량 합계 순위를 보면 현대제철이 1위, 알테크노메탈이 2위, 부곡공단에 위치한 희성피엠텍이 833톤으로 3위, 현대제철의 부생가스 발전소인 현대그린파워가 725톤으로 4위, 정미면에 있는 SIMPAC 당진공장이 591톤으로 5위를 기록했다.

유독물질 배출·이동량 당진 업체 순위를 보면 현대제철이 4,534톤으로 1위, 희성피엠텍이 760톤으로 2위, 부곡공단에 있는 태진스틸산업이 558톤으로 3위, 송산면에 있는 삼우산세공장이 518톤으로 4위, 부곡공단에 있는 휴스틸이 380톤으로 5위로 나타났다.

발암물질 배출·이동량 당진 업체 순위를 보면 현대제철이 176톤으로 1위, 합덕산단에 있는 인성 당진공장이 35톤으로 2위, 삼우산세공장이 10톤으로 3위, 황금에스티가 4톤으로 4위, 알테크노메탈 1톤으로 5위 순으로 나타났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배출량이 지역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합계 순위는 낮지만 배출량이 많은 업체와 화학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유독물질, 발암물질 등의 배출량이 많은 업체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 소재 업체의 화학물질 배출·이동량은 10만1,680톤으로 전체의 8.09%를 차지했으며 경기, 경북, 전남에 이어 광역별 순위 4위를 기록했으며 시군별로는 당진시 외에도 서산시가 9위, 아산시가 13위를 차지해 충남의 3개 시가 전국 20위 이내를 차지했다.

또한 업체별 배출·이동량 합계에서 상위 20위 이내에 충남도내 4개 업체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의 현대제철, 알테크노메탈 외에도 서산의 LG화학 대산공장이 7위, 예산의 삼지금속공업이 16위를 기록했다.

[글 : 사무국]

당진시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대화 마무리

지역주민, 노동자, 시민사회 3개 그룹별 의견 수렴



지난 11월 23일 당진시청에서 당진사회적대화 3차 종합토론회를 진행했다.

석탄화력 폐쇄에 대비한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2023년 당진시 사회적대화 프로그램이 11월 23일 3차 종합토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주관으로 진행된 올해 당진시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 대화는 1차 워크숍에 이어 지역주민, 노동자, 시민사회 및 행정 등 3개 그룹으로 나뉘어 2차 그룹별 토론회를 진행한 후 전체가 모인 3차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됐다.

10월 11일 진행된 1차 워크숍에서는 충남연구원 여형범 연구위원이 정의로운 전환 소개와 국내외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어 2차 그룹별 토론회는 10월 20일 석문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그룹이, 10월 30일 당진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시민사회 및 행정그룹이, 11월 1일 석문문화스포츠센터에서 노동자그룹이 토론회를 진행해 의견을 모았다.

각 그룹별 토론에서 지역주민그룹은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피해상황 조사 용역 준비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논의 △지속

적 학습과 토론 필요성에 대해, 시민사회 및 행정 그룹은 △시민사회단체 참여 확대와 거버넌스 구축 △행정 주도 지속적 사회적대화 운영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확대 및 당사자 참여 사업 결정 △예산지원 확대 요구 및 당진시 전담조직 구성 △지역사회 영향 조사 및 분석 필요성에 대해, 노동 그룹은 △석탄발전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노력 △민관협의체 구성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연구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안 도출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11월 23일에는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3차 종합토론회를 개최해 그룹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을 발표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2023년 당진시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대화가 마무리됐다.

사회적대화를 마무리하며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황성렬 공동대표는 “올해 사회적대화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당진시청과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면서 “내년부터는 당진시가 책임지고 계속 사회적대화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글:사무국]

정파적이고 특정 발전원에 편중된 강의 등 문제 노출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시민워크숍 개최



지난 11월 21일과 22일 이틀동안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시민참여 워크숍을 진행했다.

당진시가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자문단을 모집해 2일 동안 워크숍을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나 편파적인 강의, 피상적인 의견 수렴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지난 11월 21일과 22일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수행사인 충남연구원과 당진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40명의 시민들을 모아 시민참여 탄소중립 워크숍을 진행했다.

21일 첫날 워크숍은 호서대 환경공학과 정진도 교수, 당진시의회 탄소중립특위 김봉균 의원, 당진시탄소중립지원센터 구경완 센터장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이어 둘째 날은 용역사인 충남연구원 이상기 박사의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시민 참여단이 그룹별로 비전 및 목표, 기존 사업 검토에 대한 논의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이틀 동안 진행된 워크숍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첫 강의에 나선 정진도 교수는 강의 도중 '문제인', '좌파언론' 등을 거듭 거론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지난 정부가 2030 온

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을 비난하는 한편 탄소중립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보다는 개별 사안인 먹는 물을 플라스틱에서 유리병으로 교체할 필요성을 장시간 강조해 지역 신문에서 조차 이날 워크숍 기사 제목을 “생수병만 유리병으로 바뀌도 탄소중립 실현”이라고 보도할 정도였다. 이어 두 번째 강사로 나선 김봉균 시의원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핵발전, SMR이 마치 해결책인 듯 말하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부정하는 발언을 장시간 이어갔다. 세 번째 강사로 나선 구경완 센터장은 환경부가 공모한 탄소중립도시에 당진시가 응모했고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설명이 주를 이뤘다.

둘째날 발제를 진행한 충남연구원 이상기 박사는 핵융합발전이 20~30년 이내에 상용화 될 것이라며 핵융합발전이 상용화되면 탄소중립은 어렵지 않다고 마치 핵융합 발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인 것처럼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탄소중립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모아놓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강의에서 정작 탄소중립의 필요성, 각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설명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특정 정치적 입장에 치우친 내용으로, SMR과 핵융합 등 특정 발전원에 대해 편파적으로 설명하다보니 정작 참여한 시민들은 그룹별 토론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분과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 피상적인 의견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문제를 드러냈다.

[글 : 사무국]

포항·광양·당진 환경련 “포항제철소 민관협의체 구성하라”



지난 11월 13일 포항시청에서 포항제철소 민관협의체 조속히 구성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포항과 광양, 당진 등 일관제철소가 있는 도시의 환경단체들이 ‘포항제철소 민관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포항에만 민관협의체가 없어 포항제철소 관련 환경문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과 광양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은 13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제철소 민관협의체 조속 구성’을 촉구하며, ‘제4회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 포럼’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오는 16일 효자아트홀에서 제4회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포럼을 개최한다.

하지만, 포항·광양·당진 환경련은 무늬뿐인 포럼에 참석할 수 없다며 불참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상생 환경포럼은 포항과 광양, 당진 등 일관제철소가 있는 3개 도시 지자체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행사이다”면서 “하

만, 포항시가 일방적으로 토론을 빼고, 문화공연과 환경 퀴즈로 대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대표는 “지난 2019년 포항에서 열린 1회 포럼에는 환경단체와 대학 교수 등이 초청돼 주제 발표를 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소통도 없었고, 참석 요청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상생포럼 사태에 대해 ‘포항제철소 민관협의체’의 부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광양과 당진은 각각 2012년과 2019년 환경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이후 제철소 환경문제 갈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환경단체들은 포럼에 불참하는 대신 행사장 앞에서 집회를 통해 무늬뿐인 환경상생 포럼을 규탄하고, 포항제철소 민관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실력행사에 나설 예정이다.

[출처:노컷뉴스]

“온실가스 배출하는 LNG 말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해야”

기후위기 충남행동, 2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지난 11월 2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후위기 충남행동 주최로 LNG발전소 신설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3일, 충남 보령에서는 보령화력 5호기를 대체할 550MW급 LNG 보령신복합화력 1호기 착공식이 열린 가운데, 충남지역 환경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LNG 발전 또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이유에서다.

충남지역 환경단체들은 LNG 발전대신 태양과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22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LNG 발전소 신설과 블루수소 생산 추진은 세계적인 에너지전환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석탄에서 가스로의 전환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일부 저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발전부분의 탈탄소화를 지연시킨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LNG사업은 자칫 좌초산업이 될 우려가 크다. 석탄에 이어 또다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충남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민에게 기후 리스크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앞두고 LNG발전소 폐쇄 시 석탄발전 폐쇄로 인한 정의

로운 전환 논의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석탄발전과 LNG의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꼽았다. 단체는 (중략) “기술 발전과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그리고 환경 비용 증가로 인해 점차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화석연료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시기(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국가들이 등장하고 있다.(중략)”라고 설명했다.

황성열 기후위기충남행동 공동대표는 “(중략)LNG가 석탄발전소보다 온실가스가 적게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 어디에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없다. 충남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숙 기후위기 보령행동 대표도 “LNG 즉 천연가스는 메탄가스이고 화석연료일 뿐이다. 천연가스가 아니라 메탄가스이다. 메탄가스 또한 온실가스이다.(중략)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태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충청 시민단체 환경부에 “일회용품 규제 원안대로 시행하라”



충청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폐 규탄 대전·세종·충남·충북 공동행동이 21일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종이컵·비닐봉지·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자, 충청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런 환경부의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충청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폐 규탄 대전·세종·충남·충북 공동행동’은 21일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 안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비롯해, 편의점과 165㎡ 미만 슈퍼마켓 등의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다.

그러나 계도기간 종료를 보름가량 앞둔 지난 7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은 제외하기로 하고, 플라스틱 빨대

와 젓는 막대의 금지 계도기간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편의점의 비닐봉지 사용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동행동은 “환경부는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규제 철폐의 이유로 들지만 오히려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한 소상공인은 혼란에 빠지게 됐다.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정부를 믿었다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정부의 정책을 더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일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권고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을 뒀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국민에게만 일회용품 사용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말과 같다”며 “이는 명백히 담당부처로서 환경부가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한겨레]

“산업폐기물로 기업은 돈 벌고 피해는 주민이…더는 안 돼”

취약층 많은 농촌에 집중 ‘환경정의’ 문제 야기



11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피해 실태와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일반폐기물은 공공에서 처리하면서 정작 위험한 산업폐기물 처리는 민간 수익사업에 넘긴 게 맞는 정책인가. 언제까지 처리시설 인근 힘없는 주민들이 그 피해를 안고 살아야 하나.”

산업·의료 폐기물 처리시설이 운영 중이거나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자신들이 겪는 피해와 시설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증언하며 정부에 폐기물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중략)

그간 민간에 산업폐기물 처리를 맡겨 농촌 지역에 폐기물처리 시설을 지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데 대해 환경·시민단체 등은 ‘환경부정의’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소수 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경제부정의’라고 지적해왔다.

첫 증언자로 나선 고일래 ‘경북 포항시 오천의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 대표는 “지난해까지 지상 25m 높이까지의 산업폐기물 매립허가를 받은 포항시 오천읍 에코비트 그린포항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정부가 최근 10m를 추가 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줘, (중략) 지상 35m 높이 폐기물 산을 안고 살아가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략)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운영 중인 (주)아림환경의 의료폐기물 불법 방치를 밝혀내 공론화했던 정석원 ‘아림환경 반대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중략) “이 업체가 감염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 1500톤을 국가전산망에는 소각 처리했다고 입력하고는 전국 16개 창고에 불법 보관하며 방치해온 것을 주민들이 찾아내 고발했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은 고작 영업정지 10개월이었다” (중략)고 말했다. (중략)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산업 폐기물 매립·의료폐기물 소각 같은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수익률이 높아 대기업과 사모펀드까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업체는 돈을 벌지만 매립이 끝난 뒤 사후관리가 안 되거나 주민 피해가 생기면 결국 정부가 돈을 들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막힌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이미 인허가가 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로 하는 것은 공공이 하도록 하고, 권역별로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 산업 폐기물의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 일부 발췌]

멈춰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글/그림 박흥렬 감수 김해창 제작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PRCDN)

1. 2023.8.24.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시작!





2.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진실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의
파손된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해
주입된 물로 녹아 버린
핵연료와 섞여 있어요.



온갖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핵오염수는
매일 100톤 가량 발생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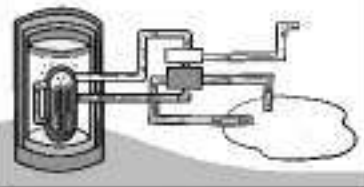


원전 잠금 가동 때 나오는
냉각수는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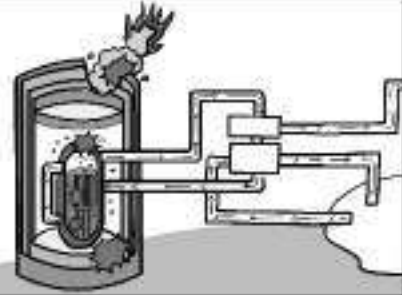
잠금 가동 때
배출되는 냉각수는



피복관에 돌리면서 원자로를 식히기
때문에 핵연료에 직접 닿지 않지만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녹아 버린 핵연료에
직접 닿기 때문에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독성이 훨씬 많은
핵폐기물입니다.



핵발전이 발생하는 국가는 100여 개인데,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64종만 언급하고



오염수 샘플을 채취할 때도
탱크 내의 물을 두 척어 평균적인
방사능 농도를 확인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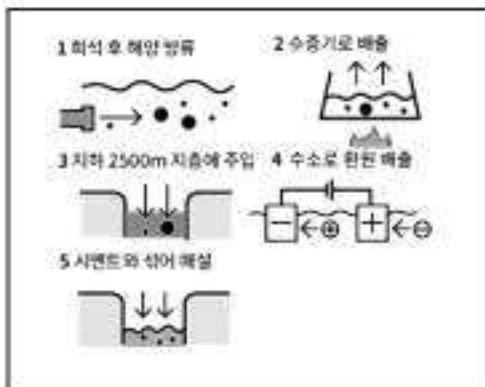
현재 후쿠시마 1~3호기 원자로 안에
핵연료 덩어리가 580톤 가량 있기에,
압으로 방사능이 얼마나
생성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



3.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범죄행위




오염수 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일본이 해양방출을 선택한 이유는










뭇카쇼무라재처리시설이란?


일본 아오모리현 뭇카쇼무라재처리시설은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한 뒤 플루토늄 추출, 나머지는 핵폐기물로 처리하는 시설이다. 1993년 시작하여 1997년에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건설 도중 많은 문제 가 생겨 무려 25차례나 연기되다가 2024년에 준공, 가동될 예정이다. 이 곳에서는 연 800톤, 40년 동안 36,000톤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방사성 물질이 발생한다.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비해 최소 12배 이상 바다로 방출되고, 크립톤, 방사성 요오드 또한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일본원자력연구추진회사 2019년 자료]



그리고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엔해양법과

저국의 사고로 인한 오염의 저국 밖 확산 금지(194조2항)
지속적인 유독, 유해, 해로운 물질의 배출 금지(194조3항)



련연합국 의정서 위반 행위입니다.

저준위방사성 폐기를 포함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저부 금지 (련연합국 의정서 부속서 I 6항)

특히 련연합국 의정서는 1993년,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 앞바다에 핵폐기물을 투기하여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자 일본 정부의 주도로 만든 것입니다.



2024년 1월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사)당진환경운동연합
2023년 11월 일반회계 수입 지출 결산 보고

(단위 :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이월금	전월 이월금	31,230,861	인건비	급여	4,600,000
회 비	개인회비	5,615,000		퇴직적립금	415,280
	법인회비	70,000		사회보험료	529,290
	계	5,685,000		계	5,544,570
일반후원금	개인후원	408,320	경상비	복리후생비	18,000
	법인후원	1,000,000		세금과공과금	86,540
	계	1,408,320		소모품비	-
사업후원금	사업후원금	-		지급수수료	147,740
	계	-	기타운영비	442,340	
단체지원금	단체지원금	-	계	694,620	
	계	-	사업비	기후에너지사업	153,200
보조금	기타사업	-		생태보전사업	14,800
	계	-		생활환경사업	35,310
지원금수입	지원금수입	420,000		조직 회원사업	1,055,800
	계	420,000		모금사업	4,630
기타수입	기타수입	-		연대사업	432,103
	계	-	기타사업	-	
전입금	전입금	-	계	1,695,843	
	계	-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	-
차입금	차입금	-		계	-
	계	-	이월액	이월액	30,809,148
		계		30,809,148	
월수입 총계		7,513,320	월지출 총계		7,935,033
수입 합계		38,744,181	지출 합계		38,744,181



11월 운영위원회 회의

11월 1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11월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11월 늘푸른물결 소식지 편집회의

11월 1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11월 늘푸른물결 소식지 편집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의로움전환 서천 사회적대화

11월 3일 서천군 서면사무소에서 서천군 정의로움 에너지전환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2023년 충남공익활동가대회

11월 9일 서산 폰타나리조트에서 충남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모인 연대의 장에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포항 철강상생포럼 규탄 기자회견

11월 16일 포항에서 열린 포항 철강상생포럼 행사장 앞에서 포항제철소 환경개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라는 기자회견에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함께 연대하였습니다.



공동의장단 회의

11월 29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공동의장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01

일반사업

- ❖ 12/01 현대제철 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 주민설명회 - 송산복지회관
충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 회의 - 내포혁신플랫폼
- ❖ 12/04 재생에너지확대 시민포럼 수상태양광 견학 - 보령
- ❖ 12/05 송전선로 관련 대전MBC 인터뷰 - 사무실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총선 대응 회의 - 온라인
- ❖ 12/06 현대제철 해고자 농성장 연대 방문 - 현대제철 앞
정기 운영위원회 및 송년의 밤 - 해송
- ❖ 12/07 원당중학교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교육 - 원당중
- ❖ 12/08 에코생협 생활재위원회 회의 - 에코생협 당진점
- ❖ 12/12 정의로운전환 사회적대화 종합 토론 - 내포혁신플랫폼
에코생협 당진점 운영위원회 - 에코생협 당진점
충남 기후위기 적응계획 좌담회 - 내포혁신플랫폼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단 회의 - 내포혁신플랫폼
소식지 편집위원회 송년회 - 미정
- ❖ 12/13 재생에너지 확대 5차 시민포럼 '영농형 태양광' - 내포혁신플랫폼
- ❖ 12/14 현대제철 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 최종보고회 - 충남도청
- ❖ 12/15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 ❖ 12/18 당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 - 당진시청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이사회 - 내포혁신플랫폼
- ❖ 12/19~12/20 시민사회 화석연료 컨퍼런스 - 켄싱턴리조트 지리산하동
- ❖ 12/20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단 회의 - 내포혁신플랫폼
- ❖ 12/21 현대제철 슬래그 용역 최종보고회 - 당진공익활동지원센터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1차 회의 - 사무실
- ❖ 12/27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회원소모임 난리부르스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12/26(화) 11시30분

03

지역현안

- ❖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당정 간 345kV 송전선로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신영 강은구 고낙현 고락일 고재만 고중민 곽성심
 광영복 구경숙 구경완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오화 권중원 길호종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기동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대원 김동길 김동진 김동환 김두현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병구 김병빈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봉일 김석래 김선규 김성훈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예나 김용준
 김윤각 김윤태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응열 김응영 김일권 김재성 김재진 김정곤 김정숙
 김정순 김정진 김종균 김종범 김주석 김지환 김진 김진남 김진용 김철환 김춘이 김필배
 김하정 김향곤 김현기 김현립 김현웅 김형기 김형모 김형태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희
 김홍환 남청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업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언 박경일 박근성 박기남 박기행 박미상 박미현 박보균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용상 박윤숙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정연 박종대 박종화 박창순 박춘희 박해규 박현순 박호완 박희선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배국희 배병호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영순 서지현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종선 손지예 손창원 송노섭 송병언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중 송한결 신경상 신미희 신양웅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엄기태 오동원 오복환 오의환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유경자 유영석 유종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주홍 윤혜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종 이능용 이대우 이동준 이동현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상현 이새봄
 이석규 이순영 이승호 이영근 이영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 월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훈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종학
 이준성 이중호 이증영 이창규 이철재 이충휘 이해선 이해운 이현숙 이해슬 이호경 이 훈
 이흥숙 인광교 인만교 인현옥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경배 전종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병준 정분환 정봉식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종한 정중섭 정찬관 정치웅 정희구 조강호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순형 조용재 조한영 조희두 주영권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채종국
 천선희 천혜경 최강부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기 최성욱 최세호 최수빈 최오상 최완택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웅 최창용 최효진 팽말숙 하용봉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문기 한미경 한상대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원희
 한청수 함효진 허권섭 허인옥 현 민 호상기 홍기석 홍두표 홍심선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김현기) 글로벌천막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당진천주교회
 대성종합공구 별나라어린이집 상록인쇄사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울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혜송

※ 12월 6일까지 입금기준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당장 멈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간 아니 그 이상도 계속해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반대하며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1인시위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장소 당진 구터미널 (장소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참가문의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 041-355-7661



당진환경운동연합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당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생명을 위한 초록변화를 만들어 갈 회원을 모집합니다.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멈추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당진환경연합과 함께 미래를 생각하고 환경을 지키는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방법

- 1 전화 041-355-7661 전화주세요.
- 2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dj.ekfem.or.kr)
- 3 주변의 지인을 소개 해 주세요.
- 4 전화주시면 회원가입신청서를 보내 드립니다.
- 5 소개시켜 주신 회원님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